



정혜엘리사벳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http://www.sackcc.net>

주임신부: 김원현. 베드로 916-207-4806
 본당부제: 김상돈. 도미닉 916-580-8519
 사목회장: 김귀태. 안셀모 916-847-8202
 연령회장: 고원석. 바오로 916-813-4440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9354 Kiefer Blvd. Sacramento, CA 95826
 사무실: 916-368-9204 Fax: 916-368-8304

오늘의 말씀	제1독서	요한묵시록 7:2-4,9-14	제2독서	요한1서 3:1-3	복음	마태오 5:1-12
--------	------	------------------	------	------------	----	------------

◎말씀 < 행복한 삶이란 >

어느 신부님이 강론시간에 교우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천국에 가고 싶으신 분은 손들어 보세요.” 대부분의 교우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신부님은 이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가고 싶으신 분 손들어 보세요.” 그랬더니 모두 다 손을 내렸다고 합니다. 마음과 결단이 이렇게 다르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바라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새기며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택한 신앙생활도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삶을 따라 한 생을 바쳤던 하느님 나라의 성인들을 공경하는 것도 진정으로 복 받은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셨고, 그분을 따랐던 성인들의 한 생도 편안하고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과연 그분들과 같은 길을 걷게 될 때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을까? 예수님과 성인들 삶을 과감히 따를 수 있는지, 아니면 그분들 덕분에 쉽고 편안하게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것인지 혼란스럽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정해놓은 행복과 불행, 그 기준에 따라 내가 바라는 행복을 주십사고, 내가 거부하고 싶은 불행을 멀리해달라고 기도하곤 합니다. 그래서 현세적 축복을 만나면 복 받았다고 생각하고, 고통을 당하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시련을 주시냐고 하느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행복의 기준,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참된 행복을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행복과는 거리가 멀고 불행하기 짝이 없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자비로운 사람,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 어느 누구도 원치 않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왜 이런 불행한 삶을 두고 행복하다고 선언을 하시는 것일까요? 현세에서 고통스럽게 살았으니 훗날 하느님 나라에 가면 보상을 받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행복 선언은 우리가 바라보는 행복관, 행복의 기준, 생각을 바꾸라는 외침입니다.

부유함과 가난함, 성공과 실패, 현세와 내세, 세상 모든 일을 이분법적으로 갈라놓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행복은 부를 축적하고 명예를 얻어 성공한 삶에 있지 않습니다. 현세에서 성공하여 힘과 영광을 누리는 이들, 그래서 하느님 두려운 줄 모르고 나보다 약한 이웃을 섬길 줄 모르는 삶이 불행한 것입니다. 가난 하면서도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아는 사람, 혼란한 세상을 살면서도 묵묵히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행복한 것입니다.

모든 성인 대축일입니다. 어떤 처지에서든 하느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뜻을 실천한 성인들을 기리며 성인들 처럼 복된 삶을 살아갑시다. 생각을 바꾸면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일 자	전 레 력	미사시간	우리들 정성(지난주)	
11월3일(화)	연중 제31주간 화요일		교무금	\$ 1,400.00
			주일헌금	\$ 747.00
11월4일(수)	성 가롤로 보로메오 주교 기념일		미사예물	\$ 120.00
			성소후원	\$ 88.00
11월5일(목)	연중 제31주간 목요일		사회복지	\$ 67.00
			성물방	\$ 0.00
11월6일(금)	연중 제31주간 금요일		기타수입	\$ 0.00
11월7일(토)	연중 제31주간 토요일		합 계	\$ 2,422.00
11월8일(일)	연중 제32주일	오전 10시	미사참례자	학생: 1명 성인: 68명
교무금 봉헌자	장석자(11-12월)장애익(10-12월)김팔봉. 박종윤(9-10월)류승교(7월)우순이(9월)윤영자. 염상보(10월)김은영. 김계숙(11월)			

◎신앙생활(기쁨 넘치는 하느님 나라를 일군다!)

십자성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루에 몇 번이나 이렇게 성삼의 이름을 부르며 십자성호를 그으세요?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전례나 기도의 시작과 끝뿐만 아니라 하루 일과나 각종 모임의 시작과 끝에 자주 십자성호를 그읍니다. 아, 식사 전후에도 꼭 그읍니다. ‘잘 먹겠습니다’ 또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말이죠.

이렇게 일상의 여러 순간에 십자성호를 그는 까닭은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그것이 비록 작고 하찮은 일일지라도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과 함께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고 보면 십자성호는 비록 간단한 동작이지만 꽤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원래 고대 중동 지방의 사형 도구였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희생되신 이후 그리스도교 신앙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교회는 이미 초세기부터 여러 형태의 십자 표시를 전례나 사적인 기도 등에서 사용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마와 가슴, 어깨에 그는 전형적인 십자성호는 5세기경부터 나타났지만, 이것이 전례나 개인기도 등에 널리 쓰이기 시작한 것은 13세기경부터라고 합니다. 특히 이 동작은 중세 초기에 성삼 기도문과 합쳐지면서 더욱 일반화되었지요. 이마와 가슴, 양 어깨에 십자성호를 그는 이유는 이들 부위가 우리 인간의 몸과 마음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이마와 입술 및 가슴에 십자 표시를 하는 것을 ‘작은 십자성호’라 합니다. 작은 십자성호 역시 중세기 이전부터 애용되었지만 전례 안에 들어온 것은 12세기 이후부터입니다. 현재는 미사의 말씀 전례 중 복음 봉독 직전에 이 작은 십자성호를 그읍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해설이 있으나, 대체로 ‘복음 말씀을 머리로 깨닫고 입으로 선포하며 마음으로 받아들여 실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합니다.

사람이나 사물에 십자표를 그리는 행위는 4~5세기부터 안수의 의미로 하기 시작했는데 축성, 축복, 사죄, 구마 등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종류의 십자 표시는 십자가상의 죽음을 통해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짙막하고 명료한 신앙 행위가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십자 표시를 통해 인간에게 빛과 구원을 주신 그리스도의 수난과 부활을 기념하고 믿음을 고백합니다.

†. 함께 기도해 주세요.

- ◎주님 은총으로 용기와 치유받기를 청합니다.
윤태옥.안나/원정은.카타리나/백정심.막달레나
전기례.베레나/김나미.로사/김옥륜.세실리아
추소연.세실리아/엠안드레아/김숙자.수산나
김초지.마리아/이규청.제노비아/엠모니카
배미성.오틸리아/박모란.글라라/고공자.벨라렛다
신용경.그레고리오/이상일.마리아/곽화근.요한
- ◎기도 부탁하실때 구역장을 통해서 해주세요.

◎오늘의 미사지향(미사신청;박울리아.916-990-6531/박프란치스코.909-573-5322)◎

구분	지향	봉헌자	구분	지향	봉헌자
연	낙태영아들과 불쌍한 연옥영혼	김진영.말따	생	곽화근.요한 건강회복	곽유경.데레사
연	박만근.베드로 영원한 안식	이베드로가정	생	(첫똥)경준이의 영육건강	구비아
연	유재표베드로, 최두능안나 영혼	유정임가브렐라	생	신사무엘, 루시아의 영육건강	구비아
연	이원용바로, 이영실카타리나 영혼	이정화데레사	생	(팔순)박종윤.요셉 영육건강	요셉회
생	김서정.데보라의 영육건강	박수옥.글라라	생	박성진.율리아 건강회복	평화의모후Pr.
생	장익재.사도요한, 장정원.안나 가정	김진영.말따	생	박종윤.요셉 영육건강	이베드로가정

◎위령성월◎

간
장
중
지

당신은 홀로 모든 불의와 죽음을 체험하고도
당신 사랑한다는 한마디 말로 모두 용서해 주시기에
죽은 이들이 당신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죽은 이와 우리, 당신의 약속으로 서로 위로하게 하소서

마종기노렌조.시인, 의사

(광고)

기쁨 넘치는 하느님 나라를 일군다!

주보제작;박봉준.프란치스코 살레시오(909- 573-5322) E-Mail:bongjun5322@gmail.com

<p>Samurai Sushi</p> <p>12251 Folsom Blvd. Rancho Cordova, CA95742 신영후(토마스) (916) 353-1112 samuraisushisac.com</p>	<p>Bradshaw Optometry</p> <p>3557 Bradshaw Rd. #2E Sacramento, CA 95827 김기상(바오로) (916)361-2020 (916)361-0433; fax</p>	<p>1.2.3 Auto Body정비</p> <p>11357 Pyrites Way Suite B1, Rancho Cordova CA 95670 이호영(호영베드로) (916)366-0123</p>	<p>좋은사람들, 좋은아웃들이 만들어 가는 곳</p> <p></p> <p>510-688-0155 베로니카 510-688-0157 레이몬드</p>
<p>FARMERS 배정순 종합보험</p> <p>사업/상해/자동차/집/ 건강/생명보험/연금 9545 Folsom Blvd # 1 Sacramento, CA 95827 (916)362-3300 (916)475-3770; cell</p>	<p>에어컨 수리</p> <p>Air Conditioner Service & Repair 배용환(울리아노) (916)548-3278 (916)362-3300</p>	<p>SNOW WHITE DENTAL</p> <p>6416 Tupelo Dr.Cirtus Heights,CA 95621 장원석(바오로) (916)729-1441 (916)230-6768; 한국어</p>	<p>클라라 가정양로원 (Clara Care Home)</p> <p>4665 Freeway Cir. Sacramento, CA 95841 김재열(스테파노) 김옥기(클라라) (530)771-7715 204-8878</p>
<p>서은미 부동산 RealtyOneGroup</p> <p>950 Iron Point Rd., #170 Folsom, CA 95630 서은미(안나) (916)600-1936</p>	<p>Hair Story Salon</p> <p>9723 Folsom Blvd. #B Sacramento, CA 95827 헤어디자이너 정린(클라라) (916)342-7072</p>	<p>메리서 부동산 · 용자 · 재정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상가/상업/부동산관리 및 자문 · 주택용자/SBA/Commercial/Land · 은퇴-자산-재무설계/재산관리 <p>서주연(마리아) (916)271-3671 · maryseo@gmail.com SACRAMENTO . DUBLIN .LA K-TOWN</p>	
<p>최병엽공인회계사</p> <p>Byungyeub Choi CPA & Associates Inc. 9521Folsom Blvd.suit P Sacramento,CA 95827 (Butterfield Plaza#P) 최병엽(바오로) (916)363-2345</p>	<p>장의사</p> <p>W.F.Gormley&Sons Funeral Home Family Owned Since 1897 Preneed Services Available (916)443-6513 www.gormleyandsons.com 모든 장례예절 성실히 봉사</p>	<p>동부뉴욕 4박5일 관광 엘로스톤 유럽 관광전문</p> <p>게스관광</p> <p>(480)244-0033 카카오톡:guesstour www.guesstour.com</p>	<p>Suzie Hair World</p> <p>2901 Mather Field Rd, #A, Rancho Cordova CA 95670 윤수산나 (916)368-8000</p>
<p>Print N Signs</p> <p>Signs/Banners/T-Shirt Wrap/Windows Tint Soheil Samiee (916)844-0280/914-3794 PrintsNsigns16@gmail.com 9336 La Riviera Dr. #B</p>	<p>♡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p> <p>성당에 제출할 CHECK 발행하실 때</p> <p>Payee to: St.J.H.C</p>		

◎공동체 소식(기쁨 넘치는 하느님 나라를 일군다!)

1구역(FE).2구역(F0).3구역(PC).4구역(NH).5구역(GF).6구역(RC).7구역(RT).8구역(NC).9구역(EG).10구역(DW)

<말씀안에 하나되는 사랑의 공동체>

♣.11월은 위령성월입니다.

세상을 떠난 모든이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열심히 기도합니다

1.공동고백성사

일시:1일(일)10시 교중미사 직전
COVID-19로 개별고백성사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특별히 베풀어지는 공동사죄(赦罪)

2.위령의 날(7일) 묘지미사 대체 안내

일시:8일(일)교중미사로 대체
위령성월 첫째 토요일에 있는 묘지미사는 교우들의 안전과 방역문제로 없습니다. 돌아가신 영혼을 위해 미사봉헌하실 분은 사무실 또는 전례부장께 신청바랍니다.

3.꾸르실리스따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안내

목적:코비드19 펜데믹으로 영적어려움을 겪고있는 꾸르실리스따들을 위한 영적 재충전
기간:12월3일~5일, 저녁7시~10시
지도신부님:김현국요한사도(트라이벨리신부)
장소:Zoom을 이용한 OnLine Program
주관:북미주 서중부 꾸르실료 사무국
참가비:\$10 문의:이상인.시메온 간사

4.본당 방역소독 했습니다.

일시:10월30일(금) 오후3시~
장소:본당건물 내부(전체)
소독업체: JAN-PRO

5.신자 주소록

게시판 내용 확인하신후 개인정보변경시 구역장이나 사무실에 연락바랍니다.

◆미사시간 변경안내

주일미사;일요일 오전10시(교중미사)
평일미사;당분간 없습니다.
미사참가 가능인원:정원의25%(약60명)
미사참례자는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주세요

◆모임 및 회합.행사 중지

별도의 통지가 있을 때까지 연장합니다.

◆교무금과 주일헌금 봉헌

교무금과 주일헌금은 주님께 받은 은총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며 교회 유지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신자들의 의무사항입니다.
미사참석에 어려우신 분은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Check 발행시: ST. J.H.C.)

◆ 미사 참례시 안내사항

- 미사 전후에 성당을 소독합니다.
(미사 장소와 친교실, 화장실 등)
- 미사 참례자는 성당 입구에서 손 세정제를 사용한 뒤 성전에 들어갑니다.
- 미사 참례자는 다른 사람과의 간격을 1미터 이상 유지합니다. 다만, 가족은 예외입니다.
- 모든 신자는 미사 시간 내내 마스크를 착용하고 성체를 모실 때만 마스크를 벗습니다.
- 미사중 신자가 함께하는 성가나 기도문 합송은 하지 않습니다. 신자들의 응답부분은 해설자가 대신하고, 성가는 필요에 따라 독창이나 오르간 반주로 대신합니다.
- 성체분배 전, 주례 사제는 제단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한 번만 외치고 성체분배 시에는 사제와 성체분배자 모두 침묵 중에 성체를 분배하고, 양형 영성체와 입으로 하는 영성체는 금지합니다.
- 미사 중(평화의 인사등) 뿐만 아니라, 미사가 끝난 후에도 악수 등 다른 사람과 신체접촉은 하지 않습니다.

화답송



주님 이들이 당신 얼굴을 찾는세대이옵니다

전례봉사	모든성인대축일(11월1일)	평신도주일(11월8일)	연중제33주일(11월15일)	모든성인대축일(11월22일)
복사	송돈희.요셉	김규철.레오	최진호.다니엘	최준우.루카
헌금위원	레지오 단원	레지오단원	레지오단원	레지오단원